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5화 得遇沙門 ①



지 금까지 시타르타 태자가 교육 받은 종교관은 바라몬교의 성전(聖典)인 <리그베다>에 한정되어 있었다. <리그베다>에서는 천신(天神) 디아우스, 태양신 스리야, 새벽의 여신 우샤스, 비의 신 파르자누스, 바람의 신 바유, 폭풍의 신 루도라, 불의 신 아그니, 물의 신 인드라, 뇌신 인드라 등등 자연현상을 신격화 한 정도의 것들이었다. 따라서 부귀, 장수, 건강, 번영, 승리, 등을 원하거나 불행, 재앙, 병, 고난 등을 피하고 싶을 때는 각각 원하는 신을 불러내어 공물을 바치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인간의 질병과 늙음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구하려는 태자의 고민에 별 도움이 될 수가 없었다.

시타르타 태자는 오랜시간 고뇌의 투쟁으로 심신이 더 이상 견딜수 없을 만큼 피곤해 있었다. 이런 상태로는 제아무리 노력을 경주한다 해도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므로 무언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태자는 정신을 맑게 해 볼 생각으로 성의 북문 밖에 있는 숲속으로 신선한 바람을 쐬이러 나갔다. 그런데 태자가 숲속에 도착하여 발견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곳에 미리 자리잡고 수도에 열중하고 있던 한 브라만 승려였다. 숲도나 라자의 명령으로 이른 아침부터 병사들을 풀어 숲속을 살살이 뒤져 모든 수도승들을 다른 곳으로 축출했는데 어찌하여 이 승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지극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대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런 숲속에 혼자 앉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출가공덕이라는 것을 어찌 말로써 다 여쭙 수가 있을 것이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덧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제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문득 태어나서 늙어가며 병들어 죽으면서 세상은 이룩되고 또 무너진다는 이치를 깨닫고 나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도를 닦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숲속에서 수행을 쌓아 고뇌에서 초월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은 깨끗하고 성스러운 길입니다. 저는 바른 법을 실천하고 관능을 넘어 큰 자비를 일으키려 합니다. 세간의 더러움에 들들지 않고 영원히 해탈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시 타르타 태자는 갑자기 정신이 맑아움을 느꼈다.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뇌의 바다속에 빠져 허우적 거려 왔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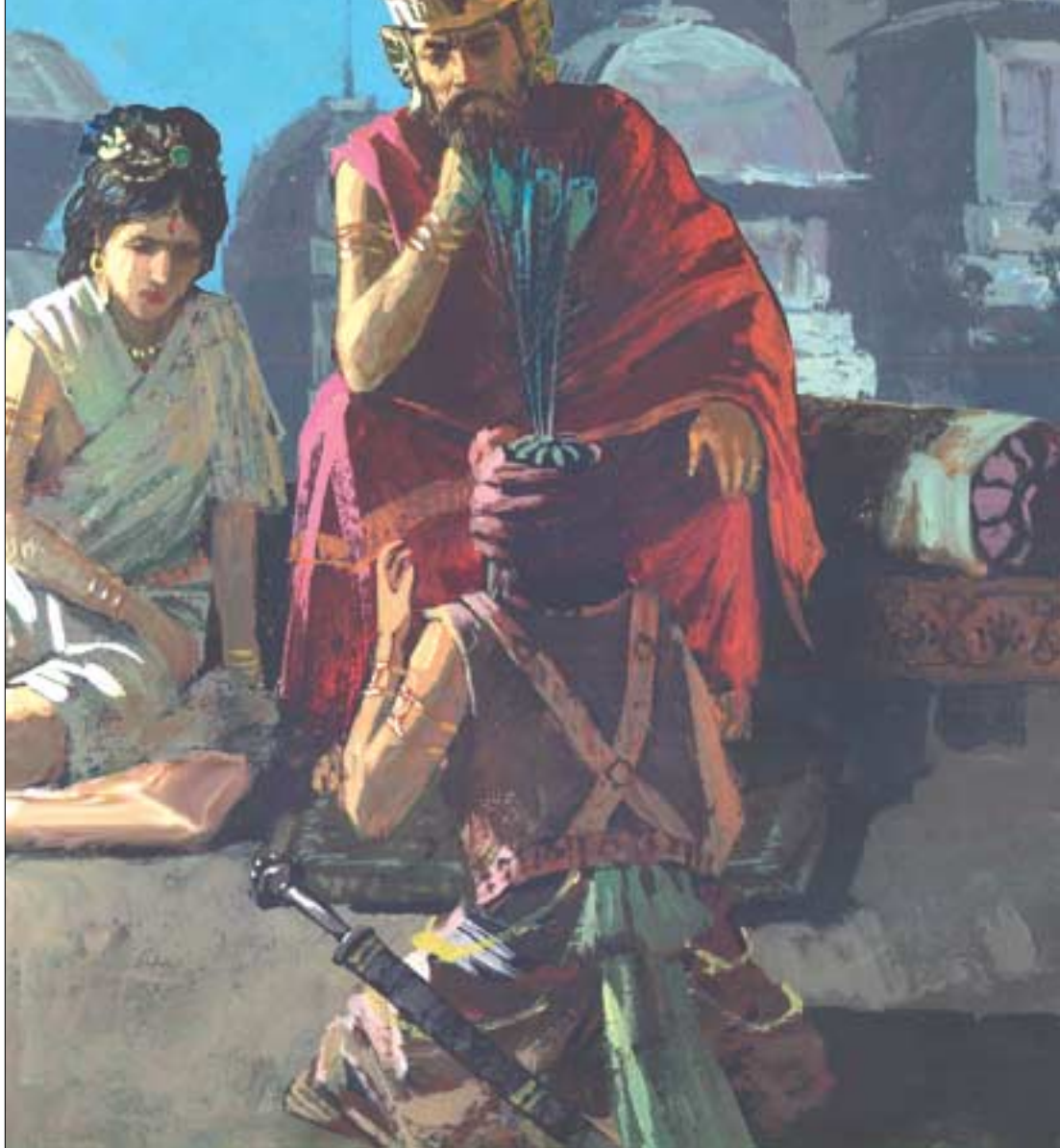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이름 없는 사문의 출가공덕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장님이 눈을 뜨듯 자신이 가야 할 길이 환히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태자와 사문간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고 어느덧 숲속에 땅거미가 내렸다. 곧 밤이되어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할 수 없이 내일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태자는 약속대로 다음날 다시 그 사문을 찾았으나 그의 모습을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었다.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그 광채를 빛내고 있을 즈음 태자는 궁성으로 되돌아왔다.



온 종일 태자 근황에 온갖 신경을 다 쓰며 걱정과 초조속에 지냈던 숲도 다나 라지는 태자가 밤늦게까지 소풍을 즐기자 드디어 태자의 심정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며 대단히 흡족해 하였다. 그러나 태자를 수행했던 신하의 청천벽력 같은 놀라운 보고를 접하자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며 더 이상 무엇을 어찌 해야 좋을지 분별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아..아. 태자가 기어코 내 곁을 떠나가는가...”



“태 자가 처음 만난 도인과 그처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면 태자 마음이 이미 궁을 떠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시아 선인의 예언중 전륜성왕(Cakra-Varti-rajah)의 길을 버리고 붓다(Buddha)의 길을 택하고 있다는 엄중한 징조인 것이다. 단 하나의 혈육에게 왕통을 전하려는 숲도나 라자(Raja)에겐 이보다 더한 충격은 없었다. 더 이상 무슨 방법으로 태자의 마음을 돌려 카필라바스투의 왕위를 잇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날 이후 태자의 모습엔 뚜렷한 변화가 왔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갈길을 몰라 불안과 초조속에 고민하던 태자였다. 그러나 그날, 이렇듯 모를 사문과 대화를 나눈 뒤부터 그가 장차 가야할 길이 명백히 정해진 듯 해 보였다. 다만 지금부터의 고민은 좀더 현실적인 것으로 어떻게 부왕으로부터 출가의 허락을 받아 낼 것인가였다. 이 나라의 태자가 왕위 계승권을 포기한다면 나라에 대 혼란이 올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다.



만 약 왕위의 계승권을 둘러싸고 대신들 사이에 분쟁이라도 있게 되면 사카족의 나라를 먹어치우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주위의 승냥이 나라들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게 되고 그 결과는 사카족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버리고 나 혼자만 해탈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출가할 수 있을 것인가...

태자는 부왕과 백성들이, 그가 차크라바르틴(轉輪聖王)이 되어 세계를 통솔하며 사카족에게 최고의 부와 영광을 안겨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잘 안다. 더욱이 주위의 수많은 강국들 틈에서 언제 그들의 공격을 받고 멸망의 비극을 맞볼는지 불안과 초조속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카족들이 아닌가. 위대한 예언가 아시아 선인이 내가 장차 차크라바르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언이 있는 후 사카족은 내가 벌써 전륜성왕의 위업을 달성하거나 한 것 처럼 사기가 하늘까지 올라 주위의 대국들을 오히려 내려보며 업신여기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열반(涅槃-Nirvana)을 얻기 위하여 가사(袈裟)를 입고 출가하는 모습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